

기술분석보고서 제약, 의료

안지오랩(251280)



작성 기관 NICE평가정보(주) 작성자 유지혜 연구원

[▶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4-68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요약
- ▶ 기업현황
- ▶ 시장동향
- ▶ 기술분석
- ▶ 재무분석
-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안지오랩(251280)

혈관신생억제 기반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개발 전문기업

기업정보(2025.10.22 기준)

대표자	김민영
설립일자	1999.06.03
상장일자	2016.10.25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제약, 의료
주요제품	혈관신생 억제에 기반을 둔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시세정보(2025.10.22 기준)

현재가(원)	4,19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146
발행주식수	3,491,870
52주 최고가(원)	8,600
52주 최저가(원)	3,600
외국인지분율(%)	0.00
주요주주	김민영, 김용한, 김준한, 정안재

■ 혈관신생억제 기반 의약품 개발 전문기업

(주)안지오랩(공시회사명 ‘안지오랩’, 이하 동사)은 1999년 설립되어 2016년 코넥스에 상장된 신약개발 전문기업으로, 혈관신생 억제 기반 천연 물의약품, 항체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주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핵심기술인 ‘ANGIOTOS(Angiogenesis Total Screening)’ 플랫폼을 활용해 혈관신생 억제 효능을 다중표적으로 탐색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총 7개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였다. 특히 습성황반변성(wet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wetAMD)치료제인 AL101-AMD가 2024년 9월 국내 임상 3상 IND 승인되었다.

■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 신약개발 및 상용화 역량 보유

동사는 혈관신생 억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확대 중이다. 한림제약 자회사 상명이노베이션에 wetAMD 치료제(AL101-AMD) 기술이전을 완료하였으며, 미국·유럽 임상 확장을 위한 공동개발 협의가 진행 중이다. 또한 항체-광민감제 결합체(Antibody Photosensitizer Conjugate, APC)와 이중항체 개발을 통해 항체의약품 파이프라인도 확장하고 있다.

■ 건강기능식품분야의 지속성장 및 글로벌 확장 기대

동사의 Ob-X는 레몬밤, 상엽, 인진쑥 추출물을 혼합한 체지방 감소용 개별인정형 원료로, 2010년 식약처로부터 기능성 인정을 받았으며 내장지방 감소 효능으로 국내 병의원 및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 중이다. 또한 치주건강 기능성 원료의 FDA New dietary ingredient(NDI) 허가를 통해 미국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으며, 향후 글로벌 치과용 건강기능식품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개별 기준)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22	10	13.6	-21	-208.1	-20	-200.0	-38.3	-33.8	17.3	-494	1,047	N/A	8.23
2023	5	-50.6	-24	-490.1	-23	-467.3	-74.5	-52.1	99.1	-570	484	N/A	15.67
2024	20	311.7	-8	-41.5	-8	-38.8	-50.3	-25.6	145.1	-195	293	N/A	26.26

기업경쟁력

혈관신생억제 기반의 천연물, 항체 신약개발기업	천연물 복합체를 활용해 다양한 난치성 질환(wetAMD, MASH, 치주질환, 삼출성 중이염 등)의 치료제를 개발 중으로, 가장 빠른 파이프라인은 임상 3상 IND 승인을 득함
글로벌 수준의 연구진과 협력네트워크 보유	국내외 대학병원 및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한림제약 자회사 상명이노베이션 등과 기술이전을 진행함

핵심 기술 및 적용 제품

혈관신생 억제 기반 신약 개발 - 핵심 기술: 혈관신생 억제 효능을 세포의 이미징 분석에 기반하여 평가하는 독자적 플랫폼 'ANGIOTOS'를 보유함. 이를 기반으로 다중표적 혈관신생 억제제 및 항염·항산화 복합기전 치료제를 개발 중임 - 적용 제품: AL101-AMD는 멜리사잎의 분획추출물로 경구투여할 수 있는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이며, 2024년 임상 3상 IND 승인됨. 건기식의 경우, 서양철엽수엽 추출물(ALH-L1005)이 2025년 6월 美 FDA NDI 승인됨. Ob-X는 레몬밤 추출물 혼합분말로 해외 수출 중임	AL101-AMD, AL102-PDT 등 핵심기술 기반 제품 개발 개요
--	---

시장경쟁력

천연물의약품 시장의 고성장 수혜 전망 및 수익원 다각화	다중표적 기반 신약개발 경쟁력과 식약처 기능성 인증 제품을 보유한 First-in-Class 천연물의약품 기업으로, 천연물의약품 외에도 항체·바이오 복합치료제 개발을 추진하며 글로벌 임상 및 기술이전을 통한 로열티 기반 수익 창출 구조를 구축함
건강기능식품 수출 및 브랜드 확장성 확보	Ob-X의 국내외 매출 확대와 더불어 FDA NDI 허가 제품의 북미 진출이 예정되어 있으며, 향후 글로벌 치주건강 기능식품 시장 진입으로 사업 안정성과 성장성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활동 현황

E 환경경영	◎ 해당사항 없음
S 사회책임경영	◎ 해당사항 없음
G 기업지배구조	◎ 이사회 총 5인(대표이사 포함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이사회 및 주주총회 개최 ◎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며, 주주 현황 및 재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I. 기업 현황

혈관신생억제 기반 신약개발 전문기업

동사는 1999년 설립되어 2016년 코넥스에 상장된 혈관신생억제 기반 신약개발 전문기업으로, 천연물의약품·항체의약품·건강기능식품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다. 주요 파이프라인을 중심으로 글로벌 임상과 기술이전을 추진하며, Ob-X 등 기능성 원료의 해외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 기업 개요

동사는 1999년 설립되어 2016년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혈관신생억제 기반 신약개발 전문기업이다. 핵심 플랫폼 기술인 ‘ANGIOTOS’를 중심으로 혈관신생 및 염증반응 관련 질환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천연물의약품과 항체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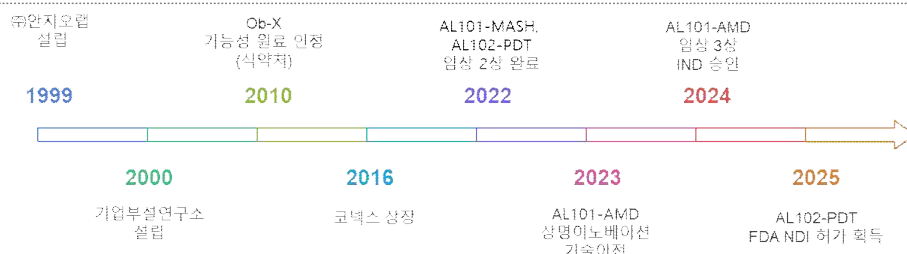
천연물의약품 분야에서는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AL101-AMD, 2024년 9월 임상 3상 IND 승인),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 치료제(AL101-MASH, 임상 2a상 완료), 치주질환 치료제(AL102-PDT/ALH-L1005, 2025년 6월 美 FDA NDI 승인) 등이 개발 중이며, 항체의약품 분야에서는 항체-광민감제 결합체(APC) 및 이중항체 후보물질 발굴이 진행 중이다. 본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 한신에스메카 159호에 위치하며, 혈관신생 억제 기전의 다중표적 접근법을 기반으로,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혁신 신약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주요 연혁 및 대표이사 주요 이력

동사는 설립 후, 2000년 기업부설 연구소 인가를 받았으며, 2010년에는 레몬밤, 상엽, 인진쑥 추출물을 혼합한 체지방 감소용 건강기능식품 원료 Ob-X를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바 있다. 2022년에는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 치료제(AL101-MASH) 임상 2a상 및 치주질환 치료제(AL102-PDT) 임상 2상을 완료하였다. 2023년에는 경구용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AL101-AMD)를 한림제약 자회사인 상명이노베이션에 기술이전 완료하였으며, 2024년 AL101-AMD의 임상 3상 국내 IND 승인을 득하였다. 2025년에는 AL102-PDT(ALH-L1005)로 FDA NDI를 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김민영 대표이사는 이화여자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하고,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생화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에서 근무하였고, 한효과학기술원 중앙생물학실장으로 재직하며 혈관신생 억제 연구를 주도하였다. 1999년 안지오랩을 창립한 이후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임 중이며, 주요 수상 경력으로는 2019년 대한민국 산업대상 바이오대상(머니투데이), 2019년 코넥스대상 최우수기술상(한국거래소) 등이 있다.

그림 1. 주요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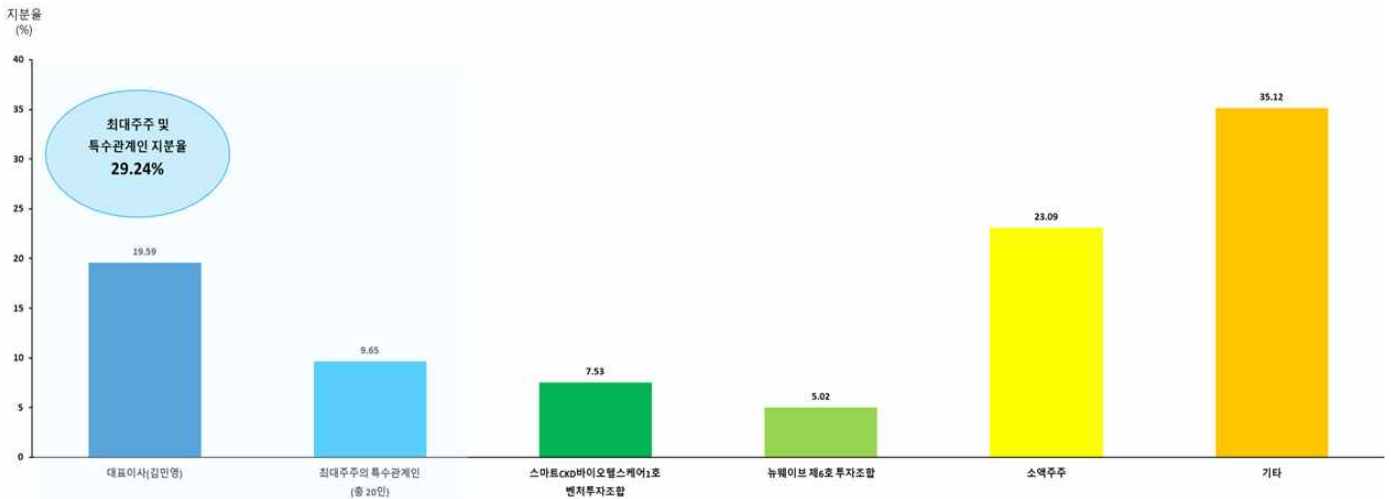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연결회사 및 주주 현황

2025년 6월 말 기준, 당사는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공시되고 있으며,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최대주주는 김민영 대표이사(지분율 19.59%)이며, 특수관계인(대표이사 외 20인)이 9.65%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 외부 투자자는 스마트CKD바이오헬스케어 1호 벤처투자조합(7.53%), 뉴웨이브 제6호 투자조합(5.02%)으로 확인된다.

그림 2. 주주 현황



출처: 당사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2025.06.),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사업 분야 및 매출 현황

당사의 주요 사업 분야는 천연물의약품 개발사업, 항체의약품 개발사업, 건강기능식품 사업으로 구성된다. 천연물의약품으로는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가 임상 3상 IND 승인되었고,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 치료제, 삼출성 중이염 치료제, 치주질환 치료제가 임상 2a상과 2b상을 완료하였으며, 주사 피부염 치료제는 전임상을 완료하였다. 항체의약품은 전임상 단계이며, 주사 피부염 치료제와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는 국내 기술이전을 완료하였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을 받은 Ob-X가 국내 병의원과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스페인, 대만 등으로 수출 중이다.

2024년 매출액은 약 20.45억 원이며, 이 중 건강기능식품 원료(Ob-X Premix) 판매가 약 37%, 기술이전이 약 50% 수준으로 확인된다. 향후 천연물의약품 임상 단계 진입 및 기술이전을 통한 로열티 수익 확대, FDA NDI 허가에 따른 미국 시장 진출이 예상되며, R&D 중심의 수익구조 다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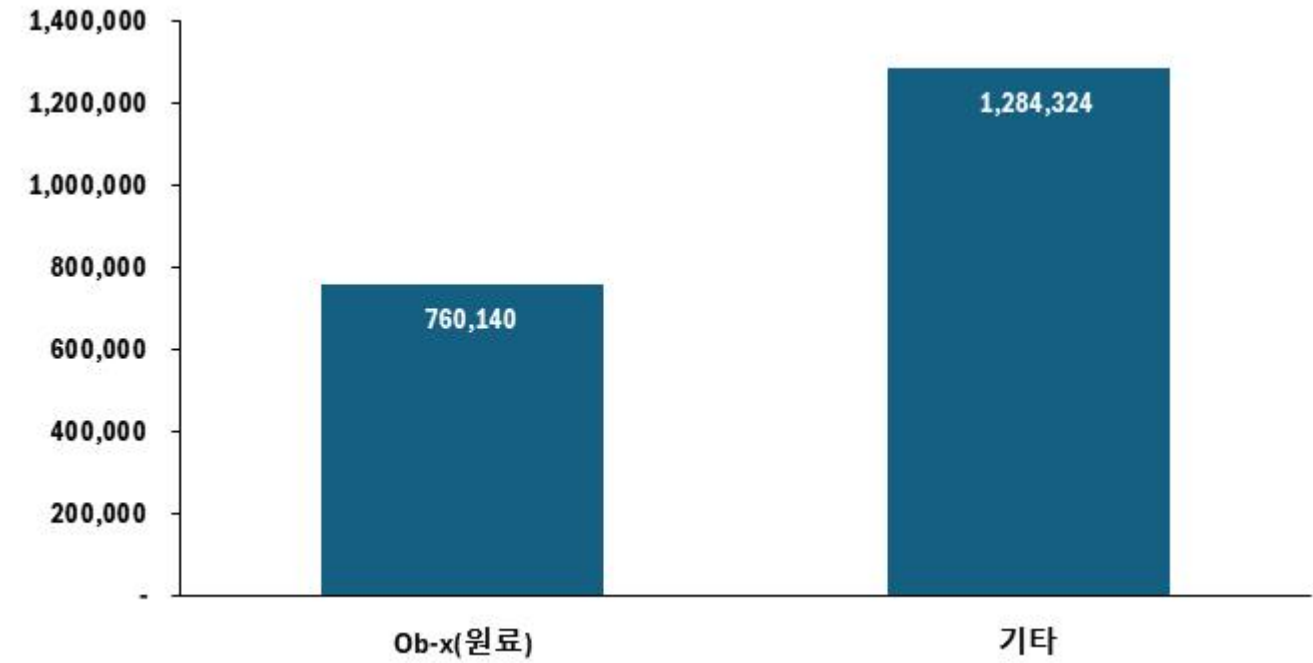
표 1. 사업 분야

사업 부문	매출유형 (품목)	구분	매출액(천 원)		매출비중(%)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Ob-x (원료)	제품	수출	19,835	40,740	3.99	1.99
		내수	67,200	719,400	13.53	35.19
		소계	87,035	760,140	17.52	37.18
기타		수출	-	23,337	-	1.14
		내수	409,611	244,987	82.28	11.98
		기술이전	-	1,016,000	-	49.70
		소계	409,611	1,284,324	82.28	62.82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그림 3. 건강기능식품 매출액 구조(2024년 기준)

(단위: 천 원)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II. 시장 동향

혈관신생 억제 기반 천연물의약품 및 기능성 원료 시장의 성장이 전망됨

천연물의약품 시장은 정부의 연구개발 촉진 정책,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 성장이 전망된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경우, 기능성 원료 중심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내외 천연물의약품 시장 규모 및 전망

천연물의약품은 식물·동물·미생물 등 자연 유래 물질을 기반으로 개발된 의약품으로, 합성의약품 대비 부작용이 적고 장기 복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제정을 통해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WHO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천연물의약품 시장 규모는 2019년 314.4억 달러에서 2026년 413.5억 달러로 연평균 약 3.9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주요 시장에서 1998년 이후 천연물 유래 신약은 25종에 달하며, 향후 고령화 및 안전성 중심의 치료 경향이 주요 성장요인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제4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 계획(2020~2024)에 따르면, 국내 천연물 시장 규모는 2019년 1,076억 원에서 2023년 2,832억 원으로 성장한 것으로 확인되며, 2028년에는 4,228억 원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하면, 천연물의약품은 고령화 및 부작용 최소화 요구를 만족하는 차세대 치료 영역으로, 국내외 시장 모두 지속적인 정책지원과 글로벌 임상 확대에 힘입어 고성장이 기대된다.

■ 국내외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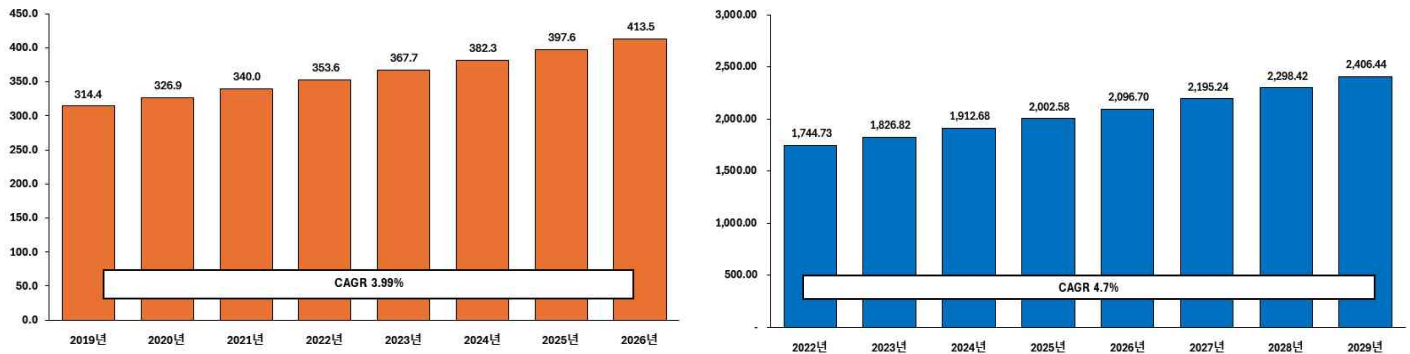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생리적 기능을 유지·증진하는 기능성 원료를 활용한 식품군으로, 고령화 및 웰니스 트렌드 확산에 따라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비만 관리·면역·혈당조절 관련 기능성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New Hope Network(2023)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세계 보충제(건강기능식품 포함) 매출액은 약 1,744.73억 달러이며 2023년 1,826.82억 달러로 연간 4.7%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료(‘2024년 식품 등의 생산실적’, 2025.06.)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은 2024년 3조 8,571억 원으로 전년(2023년 3조 8,029억 원) 대비 1.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품목별로는 프로바이오틱스(5,937억 원), 홍삼 제품(5,621억 원), 비타민·무기질류(4,958억 원)가 상위 3위를 차지했으며, 특히 체지방 감소 제품군은 2,167억 원 규모로 5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소비자들의 면역력 강화, 체중 관리, 피로회복 중심의 소비 패턴이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고령화, 웰빙소비, 비대면 유통채널 확산을 배경으로 앞으로도 안정적인 성장세가 예상되며, 특히 기능성 소재의 시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 세계 천연물의약품 시장(단위: 억 달러)(좌) 및 보충제 시장(단위: 억 달러)(우)



출처: WHO(2019), New Hope Network(2023),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주요 기관별 시장 전망

글로벌 천연물의약품(Botanical And Plant-Derived Drugs) 시장은 2019년 약 148.1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2029년까지는 약 186.6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7.4%로 전망됩니다.

— Technavio(2024)

글로벌 식물 추출물(plant extract) 시장은 2023년 약 367억 달러 규모에서 2032년 약 957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연평균 성장률은 약 11.3%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 Global Market Insights(2024)

■ 경쟁업체 현황

국내 주요 경쟁업체로는 SK케미칼, 동아에스티, GC녹십자, 종근당, 동국제약, 한림제약 등이 존재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는 Schwabe Pharma(독일), Bionorica(독일), Tsumura(일본), Sichuan Medco Pharmaceutical(중국) 등이 경쟁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Schwabe Group은 유럽 시장을 주력으로 허브 기반 의약품(herbal medicines/phytopharmaceuticals)의 연구·개발 및 판매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업이며, 일본의 Tsumura는 전통 한방 및 한약 기반 제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SK케미칼에서 2002년 출시된 경구용 골관절염 치료제인 ‘조인스정’은 2022년 기준 연 매출이 약 472억 원, 동아에스티에서 2003년 출시한 위염 치료제인 ‘스티렌’은 연매출액이 약 204억 원으로 확인되며, 2022년에는 종근당이 ‘지텍’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상기 기업들은 모두 천연물 복합성분 기반 신약개발 및 상용화 경험을 보유한 국내 대표 제약사로, 기존 합성의약품 대비 부작용이 적은 자연 유래 복합제제 중심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종합하면, 국내의 경우 대형 제약사의 안정적 매출 중심 구조와 더불어 벤처기업 중심의 신기술 개발이 공존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은 천연물의 과학적 표준화·임상 근거 축적 경쟁이 심화하는 추세이다.

표 2. 국내외 경쟁업체 현황

구분	품목	경쟁업체
의약품	천연물의약품	(해외) Schwabe Pharma(독일), Bionorica(독일), Tsumura(일본) 등
		(국내) 동아에스티, 종근당, SK케미칼, GC녹십자, 동국제약, 한림제약 등

출처: 각 회사 홈페이지,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III. 기술분석

자체 특허 기반 기술력 보유 및 천연물의약품, 항체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사업 추진 중

동사는 혈관신생억제 기반 신약개발 전문기업으로, 독자적인 특허 기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술이전에 성공한 바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승인을 득하여 해외 진출 중이다.

■ 주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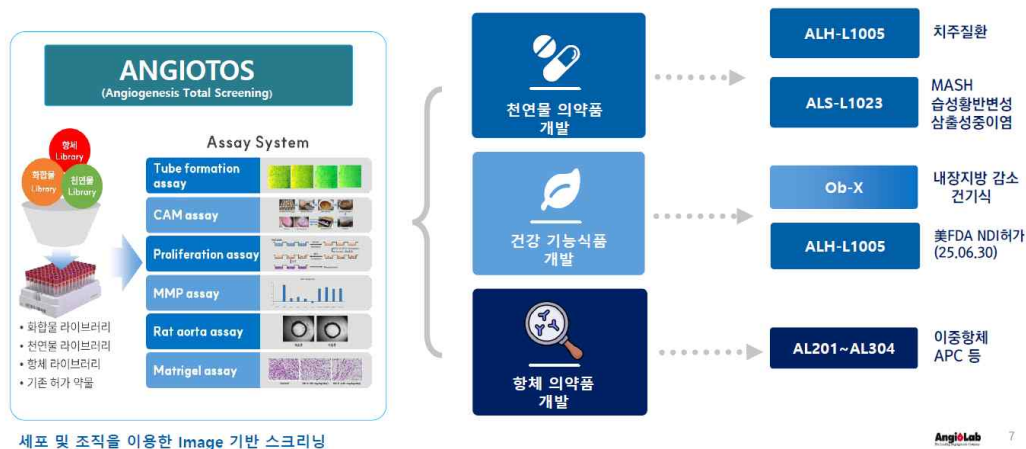
동사의 주요 사업은 혈관신생억제 기반의 천연물의약품 개발사업, 항체의약품 개발사업, 건강기능식품 사업으로 구분된다. 천연물의약품 분야에서는 독자 개발 플랫폼 ANGIOTOS를 기반으로 혈관신생과 염증, 섬유화를 다중표적으로 억제하는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 주요 파이프라인으로는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AL101-AMD),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 치료제(AL101-MASH), 치주질환 치료제(AL102-PDT), 삼출성 중이염 치료제(AL101-OME) 등이 있으며, 특히 AL101-AMD는 2024년 임상 3상 IND 승인을 획득하였다. 항체의약품의 경우 APC, 이중항체, 그리고 세포투과 펩타이드를 개발하여 전임상 단계까지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며, 건강기능식품 사업은 식약처로부터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은 Ob-X를 주력 제품으로 하고 있다. 동사는 2025년 6월 미국 FDA로부터 치주건강 개별인정형 원료(ALH-L1005)의 NDI 허가를 획득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표 3. 동사 사업군

구분	주요 제품	
주요 사업	천연물의약품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AL101-AMD),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 치료제(AL101-MASH), 치주질환 치료제(AL102-PDT), 삼출성 중이염 치료제(AL101-OME) 등
	항체의약품	APC(항체-광민감제 결합체), 이중항체, 세포투과 펩타이드 결합 항체
	건강기능식품	Ob-X, ALH-L1005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그림 5. 동사의 주요 제품군



출처: 동사 IR 자료(2025.09.),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기술 진입장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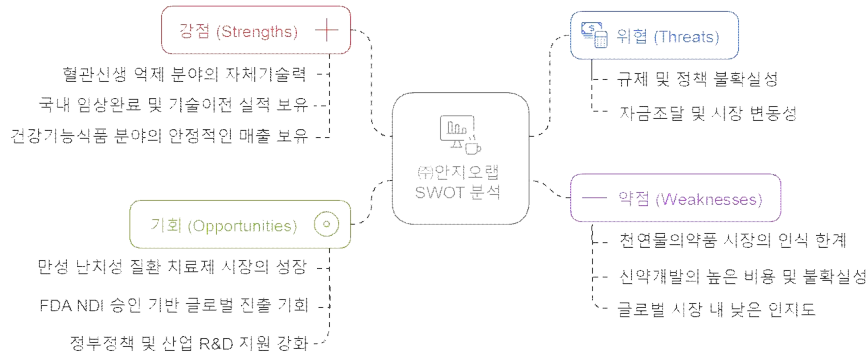
동사는 천연물의약품 표준화·혈관신생억제·복합기전 기반 다중효능 설계 기술을 통해 높은 기술적 진입장벽을 구축하였다. ANGIOTOS 플랫폼은 다중표적 혈관신생 억제 기전 분석 기술로, 다중성분의 분리·동정 및 효능을 정량화하는 독자적 실험 체계를 보유하고 있어, 타 경쟁사가 단기간에 복제하기 어려운 기술로 판단된다. 또한, 동사가 개발한 제품들은 한국 식약처 개별 인정 및 미국 FDA NDI 등록된 물질들로, 안전성 및 임상적 유효성 자료가 축적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 다수의 특허 및 논문 포트폴리오(혈관신생 억제, 염증 억제, 지방세포 분화 억제 관련)가 존재하여 후발주자의 모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천연물 표준화 공정 및 복합 조성물의 동정 기술은 공정 재현성과 품질 균일화가 핵심으로, 고도의 노하우와 장기적 데이터 축적이 필수적인 영역이다.

요약하면, 동사는 혈관신생 억제 기전의 차별화된 기술력, 식약처·FDA 인정 기반 원료 신뢰성, 고강도 R&D 투자, 특허 포트폴리오를 통해 천연물의약품 분야에서 확고한 기술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있다.

SWOT 분석

(주)안지오랩 SWOT 분석



1. 강점 (Strengths)

- 혈관신생 억제 분야의 자체적인 기술력: 독자 플랫폼 ANGIOTOS를 기반으로 다중표적 혈관신생 억제 기전을 구현 및 기존 단일 anti-VEGF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 확보
- 국내 임상완료 및 기술이전 실적 보유: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의 국내 기술이전 계약 체결 및 다수 파이프라인의 임상 2상 완료를 통해 안전성과 효능을 입증
-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안정적인 매출 보유: 치주건강 건기식 원료의 미국 FDA NDI 승인 및 기존 Ob-X의 국내외 판매 실적 보유

2. 약점 (Weaknesses)

- 천연물의약품 시장의 인식 한계: 일부 의사·소비자 층에서 천연물 제제의 과학적 근거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시장 확장 속도 제약 요인 존재
- 신약개발의 높은 비용 및 불확실성: 신약 개발 특성상 후기 임상 진행 시, 막대한 규모의 개발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 글로벌 시장 내 낮은 인지도: 글로벌 임상과 기술수출을 추진 중이나, 다국적 제약사 대비 낮은 브랜드 인지도 및 파트너 네트워크

3. 기회 (Opportunities)

- 만성 난치성 질환 치료제 시장의 성장: 습성 황반변성, 대사이상관련 지방간염(MASH) 등 혈관신생 관련 만성 난치성 질환의 글로벌 시장 규모가 고령화 등에 힘입어 급격히 성장
- FDA NDI 승인 기반 글로벌 진출 기회: 미국 NDI 허가를 획득한 치주건강 원료를 중심으로 북미 및 아시아 기능성식품 시장 진입 가능성 확대
- 정부정책 및 산업 R&D 지원 강화: 제4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 계획(2020~2024) 등 공공 R&D 자금 확대에 따라 기업의 임상·인허가 부담 완화

4. 위협 (Threats)

- 규제 및 정책 불확실성: 천연물 신약 관련 평가 기준이 국가별로 상이하며, 식약처의 허가 정책 변화에 따라 개발 일정 차질 가능성 존재
- 자금조달 및 시장 변동성: 바이오 투자심리 둔화와 코넥스 시장의 유동성 한계로, 장기 임상 자금 확보의 불확실성 상존

IV. 재무분석

2024년 매출 증가,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 축소

2024년 동사 매출액은 신규 거래처 확보로 인한 Ob-X Premix 매출 확대와 기술이전 계약으로 인한 매출 인식으로 전년 대비 15억 원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원가 및 판관비 부담이 완화되며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 규모가 각각 16억 원, 15억 원 축소되며 수익성이 개선되었다.

■ 2024년 주요 사업 부문 실적 개선으로 매출액 확대

동사는 혈관신생억제 발굴 기술을 바탕으로 천연물의약품 및 항체의약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혈관신생억제 효능을 가진 건강기능식품 Ob-X의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2024년 결산 기준 전체 매출의 37.18%는 건강기능식품 원료인 Ob-X Premix가, 13.13%는 완제품인 Ob-X 다이어트 클래식, Ob-X 워터믹스가 차지하고 있다. 동사의 최근 매출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9억 원, 10억 원의 매출을 시현한 이후 2023년에는 주요 거래처 수주 부진으로 매출이 전년 대비 50.6% 감소한 5억 원을 기록하였다. 2024년 매출은 신규 거래처 확보를 통한 Ob-X Premix 매출 확대와 기술이전 계약 체결로 인한 계약금 10억 원을 매출로 인식하며 전년 대비 311.7% 성장하여 20억 원을 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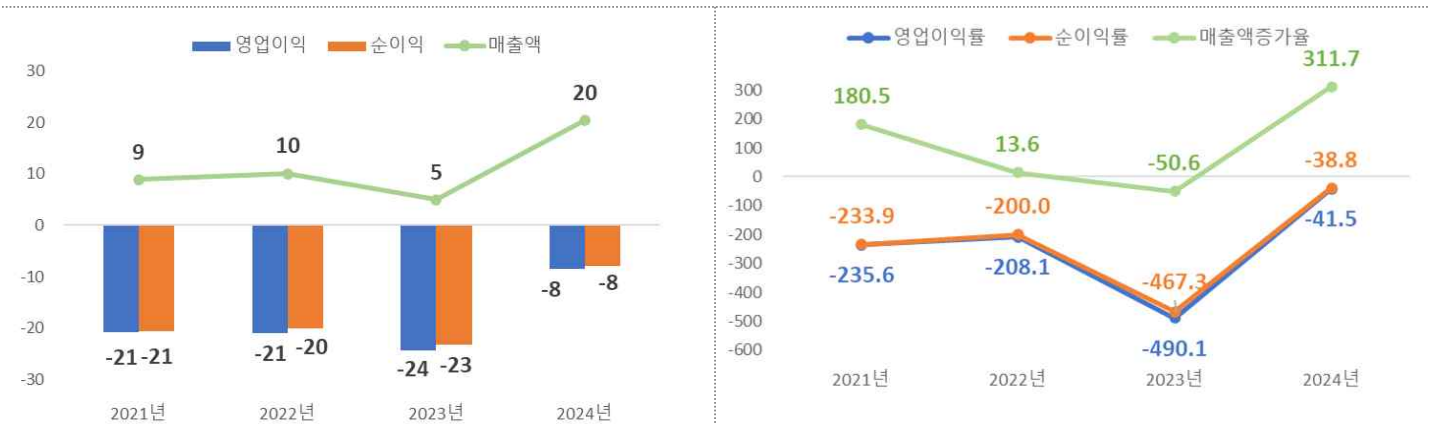
■ 2024년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 축소

2023년에는 2022년 대비 매출이 50.6% 감소하고 매출원가가 증가하며 영업손실 규모는 3억 원 확대되어 24억 원을 기록하였다. 영업이익률이 -490.1%로 전년 대비 282.0%p 감소하며 당기순손실 또한 3억 원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순이익률은 -467.3%를 기록하였다.

2024년, 동사 매출이 15억 원 증가함에 따라 원가 및 판관비 부담이 완화되며 영업손실은 16억 원, 당기순손실은 15억 원 감소하였다. 영업이익률은 448.6%p, 순이익률은 428.5%p 상승하며 수익성이 대폭 개선되었다.

그림 7. 동사 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개별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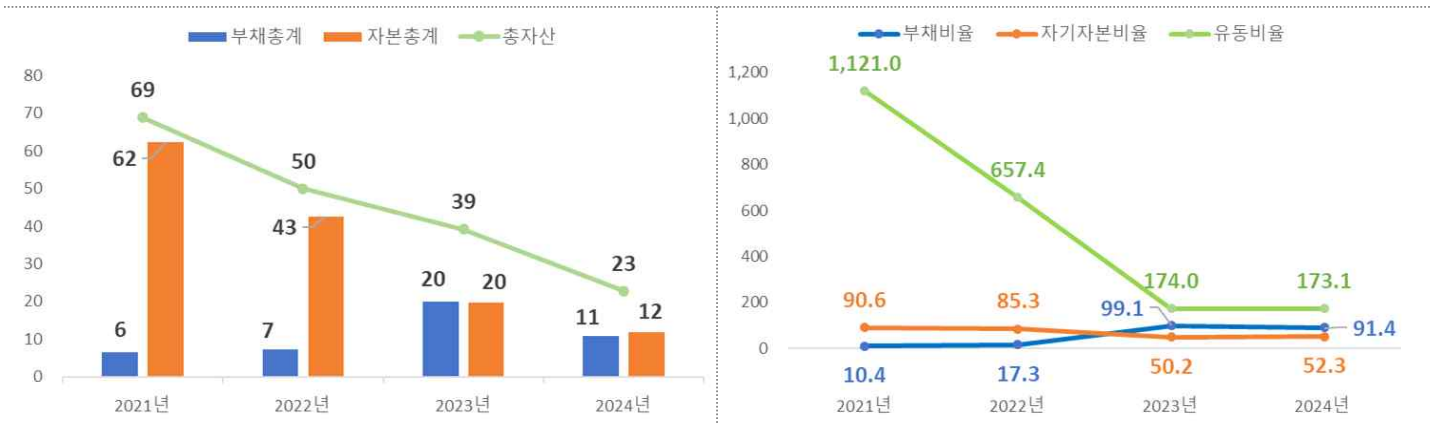
■ 우수한 재무건전성 유지

2023년 결산 기준, 동사의 총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모두 감소하며 전년 대비 11억 원 축소되고, 기술이전에 따른 계약금으로 선수금이 대폭 확대되며 부채총계는 13억 원 증가하였다. 유동비율은 483.4%p 감소한 174.0%를 기록하고, 부채비율은 81.8%p 상승하여 99.1%를 나타내었다. 총자산 증가의 영향으로 자기자본비율은 50.2%로 하락하였다.

한편, 2024년에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 총자산이 전년 대비 16억 원 감소하였다. 계약부채를 매출로 인식하며 부채총계는 9억 원 감소하고, 자본총계는 8억 원 감소하여 12억 원을 기록하였다. 유동비율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부채비율은 7.7%p 하락하였다. 동사는 2023년 이후 재무구조가 다소 악화되었으나, 동일 산업 평균 대비 우수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8. 동사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개별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표 5. 동사 요약 재무제표

(단위: 억 원, K-IFRS 개별 기준)

항목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매출액	9	10	5	20
매출액증가율(%)	180.5	13.6	-50.6	311.7
영업이익	-21	-21	-24	-8
영업이익률(%)	-235.6	-208.1	-490.1	-41.5
순이익	-21	-20	-23	-8
순이익률(%)	-233.9	-200.0	-467.3	-38.8
부채총계	6	7	20	11
자본총계	62	43	20	12
총자산	69	50	39	23
유동비율(%)	1,121.0	657.4	174.0	173.1
부채비율(%)	10.4	17.3	99.1	91.4
자기자본비율(%)	90.6	85.3	50.2	52.3
영업현금흐름	-18	-18	-8	-14
투자현금흐름	-11	-4	6	21
재무현금흐름	54	-1	-1	-1
기말 현금	26	3	1	7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동사 실적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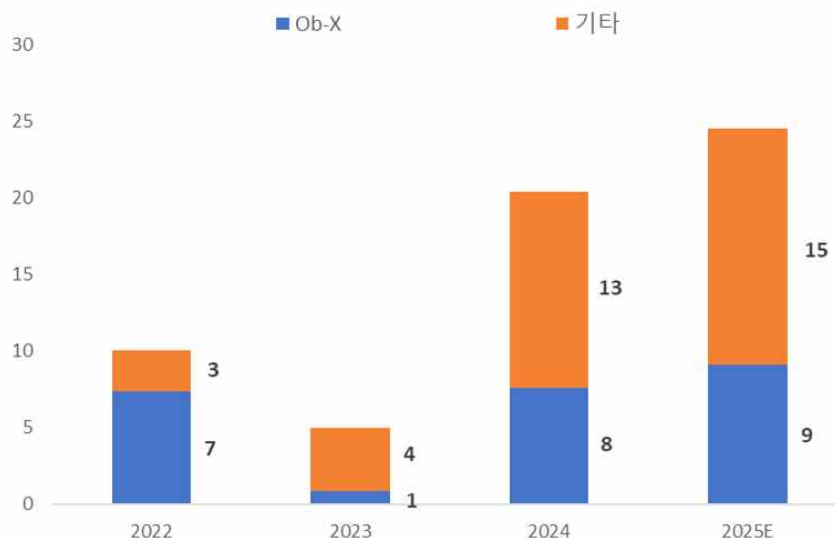
동사는 혈관신생억제 기반의 독자적 플랫폼을 토대로 천연물의약품, 항체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을 아우르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제약 산업이 규제와 위험이 큰 동시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동사는 차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천연물의약품 부문에서는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가 임상 3상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치주질환·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삼출성 중이염 치료제도 임상 2상 또는 2a상을 완료하였다. 주사 피부염 치료제는 전임상 후 국내 기술이전을 마무리하며 조기 상업화 기반을 다졌다. 항체의약품은 자체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외부 협력을 통해 신규 플랫폼을 확장하는 등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부문에서는 Ob-X가 내장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아 국내외 시장에서 판매 확대를 이어가고 있으며, 온라인 직판과 해외 수출로 매출 기반을 다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다각화된 성과는 연구개발 투자에 힘입어 실적 개선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임상 파이프라인의 진척과 기능성 원료 매출의 증가는 향후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9. 동사 사업부문별 실적 및 전망

(단위: 억 원, %, K-IFRS 개별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표 6. 동사의 사업부문별 연간 실적 및 전망

(단위: 억 원, %, K-IFRS 개별 기준)

항목	2022	2023	2024	2025E
매출액	10	5	20	24
Ob-X	7	1	8	9
기타	3	4	13	15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글로벌 인허가 실적 기반 기술이전, 해외진출, 수익성 개선 전망

동사는 2024년 습성황반변성 치료제 임상 3상 IND 승인과 2025년 치주질환 치료제의 FDA NDI 허가를 득하여 글로벌 인허가 성과를 달성했으며, 향후 이를 기반으로 기술이전, 해외시장 진출,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천연물의약품 글로벌 임상 및 기술이전 가속화

동사는 혈관신생억제 기전 기반의 천연물의약품 파이프라인을 중심으로,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AL101-AMD)의 국내 임상 3상 IND 승인을 2024년 9월 획득하였다. 또한 해당 파이프라인은 한림제약의 자회사인 상명이노베이션에 기술이전 되어 국내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고, 해외 기술이전도 추진하고 있다. 치주질환 치료제(ALH-L1005)는 2025년 6월 미국 FDA NDI 허가를 획득하여 해외 건강기능식품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북미 및 아시아 지역 유통망 확대가 기대된다.

■ 항체기반 복합치료제·건기식 신사업 추진

동사는 기존 천연물의약품 연구 역량을 확장하여 APC 및 이중항체 신약 개발을 신규 연구 축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당 기술은 암·안과·CNS 질환 분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어 바이오의약품 시장 진입을 위한 전략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부문에서는 체지방 감소 원료 Ob-X의 판매채널 다변화와 함께, FDA 승인 치주건강 원료(ALH-L1005)를 중심으로 글로벌 브랜드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향후 국내외 식품 OEM·ODM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B2B 기능성 원료 공급사업 및 해외 직수출 확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수익구조 고도화

동사는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평균 140%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며 R&D 중심 경영체계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임상 파이프라인 다각화와 해외 인허가 진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글로벌 기술이전 수익과 기능성 원료 판매 수익의 이중 포트폴리오 구조를 구축하였다. 2025년 하반기 이후에는 AL101-AMD 임상 3상 진입, ALH-L1005 해외 출시, 항체신약 전임상 진전 등 가시적인 성과가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 매출 성장과 기업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최근 뉴스와 향후 전망

☑ 프롬프트: 동사의 최근 뉴스와 향후 전망에 대해 알려주세요.

☑ 생성형 AI 답변:

안지오랩은 2024년 하반기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AL101-AMD)의 임상 3상 IND 승인을 획득하며, 국내 최초의 천연물 기반 경구용 황반변성 치료제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6월에는 치주질환 치료제(ALH-L1005)가 미국 FDA로부터 신규건강식품원료(NDI) 허가를 받으며, 국내 천연물의약품 기업으로는 드물게 글로벌 시장 진출의 인허가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동사는 현재 한림제약 자회사인 상명이노베이션에 기술이전을 기반으로 AL101-AMD의 국내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부문에서는 체지방 감소 원료 'Ob-X'의 공급처가 확대되어 온라인 유통망 등 B2B·B2C 채널을 중심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AL101-AMD 임상 3상 완료 및 글로벌 기술이전, ALH-L1005의 북미 시장 출시, 항체-광민감제 결합체(APC) 및 이중항체 기반 신약 개발을 통해 신약개발과 기능성원료 사업의 이중 성장축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FDA 승인 이력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와 R&D 투자 확대에 따른 파이프라인 다변화로, 2026년 이후 수익성 개선 및 기업가치 상승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출처: Chat GPT

안지오랩은 혈관신생 억제 기술을 기반으로 천연물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성장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주력 파이프라인인 경구용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 ‘AL101-AMD’는 2024년 9월 임상 3상 시험계획(IND)을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으며 품목 허가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ALS-L1023은 기존의 안구 내 주사 방식 anti-VEGF 치료제와 달리 경구투여의 장점을 가지며, VEGF뿐만 아니라 PDGF, bFGF, MMPs 등 다중표적을 억제하고 망막색소상피세포를 보호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기존 치료제의 한계인 내성 문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안지오랩은 2023년 10월 ALS-L1023의 국내 기술이전을 한림제약 및 자회사 상명이노베이션에 완료하며, 총 110억 원 규모의 기술료와 매출에 따른 로열티를 확보하였고, 2024년 임상 3상 IND 승인으로 계약금 10억 원을 매출로 인식하여 재무 건전성도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안지오랩은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된 물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빠르게 제품화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하며, 그 첫 번째 성과로 치주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기반의 치주건강 기능성 원료 ‘ALH-L1005’가 2025년 6월 30일 미국 FDA로부터 신규 건강기능식품 원료(NDI)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ALH-L1005는 염증 및 잇몸 분해 효소(MMP) 억제, 치조골 파괴 방지 효능을 가지며, 이를 통해 북미 및 글로벌 치주 건강 시장에 진출하여 새로운 매출 동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대사이상관련 지방간염 치료제(AL101-MASH), 치주질환 치료제(AL102-PDT), 삼출성 중이염 치료제(AL101-OME) 등 다수의 천연물의약품이 임상 2상/2a상을 완료하고 기술이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항체의약품 분야에서도 이중항체 및 APC(Antibody Photosensitizer Conjugate) 개발을 추진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지오랩은 주력 파이프라인의 임상 3상 진입 및 기술이전 마일스톤 확보, 그리고 의약품 기반 건강기능식품의 해외 시장 확대를 통해 향후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경구용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의 글로벌 상업화 성공과 연이은 기술이전 달성 여부가 중장기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 출처: Gemini

증권사 투자 의견

작성 기관	투자 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	-	-	-
최근 6개월 내 발간보고서 없음			

안지오랩(251280)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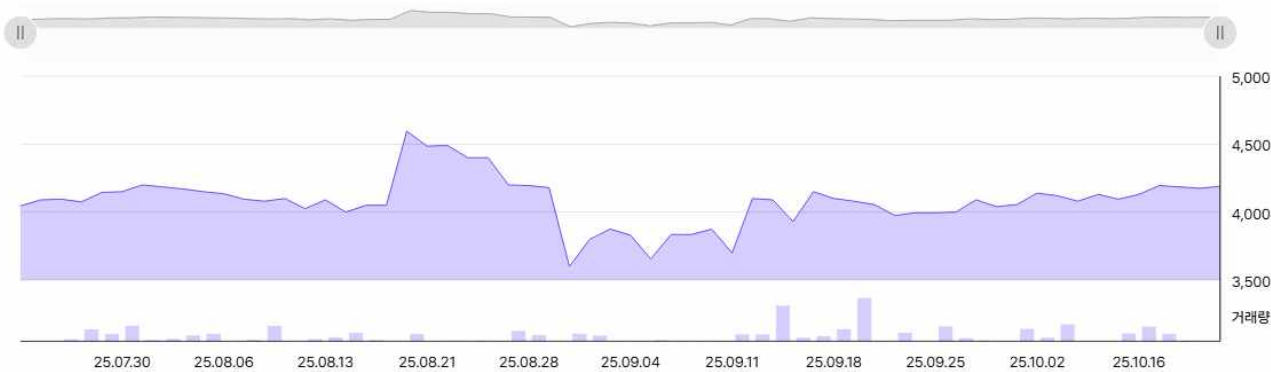
251280 코넥스

4,190 ▲15 +0.36%

기준 : 2025.10.22 | 단위 : 원, 주, %

전일 4,175 고가 4,195 거래량 16 주
시가 4,195 저가 3,905 거래대금 - 백만원

1주일 3개월 6개월 1년 3년 5년



자료: NICE BizLINE (2025.10.22)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 종목 투자 경고 종목 투자위험 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 근거: 시장감시 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 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7

기업명	투자주의 종목	투자 경고 종목	투자위험 종목
(주)안지오랩	X	X	X